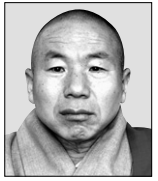


일 주 문



능인학원 졸업식
조계종 종림 능인학원 이사장 항적 스님은 2월 7일 교내 강당에서 제72회 졸업식을 갖고 중학교 423명, 고등학교 553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실전호흡수행 6기 모집
서울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은 3월 8일까지 실전호흡수행 6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02)732-2183



동안거 해제 설법회
현각 스님은 3월 1일 오전 11시 부산 대광명사에서 동안거 해제 기념 설법회를 개최한다. (051)742-7610



한국 영향력 CEO 33인 선정
김희옥 동국대 총장은 2월 14일 TV 조선이 주관하는 2013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33인에 선정됐다.



명예약학박사 취득
남중현 그래미 회장은 2월 15일 동국대로부터 숙취해소제 '여명 808' 등을 개발하고 약학대학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약학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지극 정성 다하면 무엇이든 이뤄져”

조광래 나로호발사추진단장



지성여신(至誠如神, 지극한 정성을 다하면 신과 같은 놀라운 힘이 있다). 한 과학자의 사무실에 적힌 글귀였다. 우리나라가 첫 우주발사체인 나로호를 발사에 성공한 1월 30일 환한 웃음을 짓는 이가 있었다. 나로호 발사 프로젝트를 지휘한 조광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나로호발사추진단장이었다.

독실한 불자인 조광래 단장은 항공우주 과학계에서 이례적으로 종립대학인 동국대에서 학부와 석사(1984년) 박사(1988년)를 모두 수료했다.

1989년 연구원 설립 이후 20년 넘게 로켓 개발 외길만 걸은 조광래 단장은 1990년대 과학 관측 로켓 개발을 주도했고, 2000년대 들어 우주발사체 개발을 위해 나로호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진두지휘했다.

조광래 단장은 나로호 발사 성공이라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술진들과 지난 11년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에 몰두했다. 30일 나로호 발사가 성공리에 이뤄지자 나로호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들은 곳곳에서 눈물을 쏟아냈다. 그들의 말을 빌리면 술한 잔을 고행한 끝에 비로소 일궈낸 ‘고진감래(苦盡甘來)’의 진

백척간두진일보 마음으로 임해
공황장애 진단에 신경안정제 복용
종립 동국대에서 학사부터 박사까지

한 눈물이었다.
지난 두 번의 실패를 겪으면서 조광래 단장이 느낀 중앙감은 컸다. 그로 인해 공황장애 진단을 받아 매일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기도 했지만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의 심정으로 발사에 임했다.

조광래 단장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은 없다. 반드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동안 살아온 인생 전체를 걸고 준비했다”며 “우리 연구원들을 패잔병으로 만들지 않은 게 무엇보다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광래 단장 개인적으로는 프로젝트가 11년째 진행되며 개인 생활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2008년 겨울에는 부산 제작공장에서 연구원 수십 명과 겨울비를 맞으며 실험을 강행해 단체로 독감에 걸리기도 했다. 조광래 단장은 이번 나로호 발사 성공의 이면에 과학자들의 땀과 눈물이 숨어있음을 알아달라고 강조했다.

조광래 단장은 “한국의 우주과학 연구 인력은 200여명에 불과하다. 러시아 후르니체프사는 4만 명에 달하고, 러시아의 한 개 엔지니어링도 2천명이 넘는다고”며 “꾸준히 지원한 정부의 결단과 국민들의 관심과 격려가 발사성공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나로호 발사로 자력으로 개발한 로켓을 자국 발사대에서 쏘아 올려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킨 이른바 ‘스페이스(우주) 클럽’에 11번째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천호희망재단, 네팔오지에 희망 전달



네팔 산악지대 마을에 자비의 손길이 전해졌다. 천호희망재단(이사장 월서)은 1월 31일 네팔 산악지대 밤피마을 보우다초등학교에 물탱크와 화장실을 지원했다.

월서 스님은 밤피마을 보우다 초등학교와 결연을 맺고 학생들에게는 학용품과 배드민턴, 축구공 등을 전달했다. 보우다 초등학교에는 40여명의 어린이가 공부하고 있다. 천호희망재단은 이번 결연에 따라 학교와 마을 발전을 위해 앞으로 매달 5000루피를 후원할 예정이다.

월서 스님은 “교육 만이 미래를 담보한다”며 전달의 의미를 전했다.

한편, 천호희망재단은 부처님 자비로 지구촌 이웃들을 돕기 위해 2012년 6월 활동을 시작했다. 캄보디아 오지마을 초, 중, 고등학교에 매월 정부교과서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미얀마와 라오스로 활동 영역을 넓혀 교과서를 제공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학림사 쌀 200포대 불우시설에 기탁



수락산 학림사는 새해를 맞아 자비 보시 정신 실천을 위한 행사로 불우 이웃 돕기 공양미 모이기 행사를 진행했다. 여기서 모인 쌀 20kg 200포대를 2월 13일 구청을 통해 관내 불우시설에 전달했다.

김주일 기자

대연각사 자비의 쌀 부여군에 기탁



부여 대연각사(회주 불입)는 2월 6일 부여군청에서 입춘기도를 마련한 자비의 쌀 20kg 108포대를 부여군 관내 불우 청소년 및 독거노인을 위해 사용돼 달라며 이용우 부여군수에게 전달했다.(041)835-3933

노덕현 기자

불자 서남수, 김병관 새 정부 교육·국방 수장으로

서남수 내정자

교육부 인봉회 창립
전인차 역할
송담 스님 법문 듣고
불교 수행



진각종림 위덕대 서남수 현 총장과 김병관 前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이 박근혜 정부의 첫 교육부,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18대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2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외교부, 국방부 등 6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는 차관 시절 교육부 불교 신행 모임인 인봉회 창립을 견인했을 정도로 독실한 신심을 가진 불자로 잘 알려져 있다.

실제 서 내정자는 지난해 위덕대 총장 취임 직후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도 “30년전 인천 용화사 송담 스님 법문을 접하고 불교 공부를 시작했다”며



김병관 내정자

군불총 회장 등
군포교 공로 커
반야심경 강의 진행
불교 교리 해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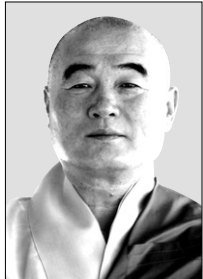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도 독실한 신심을 자랑하는 불자이다.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시절 국군불교총신도회 회장을 역임하며 군포교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그는 이 같은 공로를 인정 받아 2007년 조계종 불자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 내정자는 해박한 불교 교리를 가진 것으로 평평이 나 있다. 실제 그는 2008년 국군불교총신도회장 당시 장교들을 대상으로 ‘수행과 반야심경’에 대해 강의하기도 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강의에서 선수행의 관점에서 <반야심경>을 재해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 내정자는 당시 강의에서 “좋은 것, 옳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나쁜 것도 내려놓을 수 있다. 지옥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라며 “반뇌를 일으키는 그 생각이 모두 나라는 것을 아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지고 본성이 다가온다. 진정한 나는 원래 없는 공(空)임을 깨달을 때 진정한 의미의 대자유를 찾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내정자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으며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육군본부 2사단 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부 부장, 1군사령관 등을 역임했다. 확고한 안보관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중일 기자

전사련 2대 회장에 무산 스님 취임



전국사실사단체총연합회(이하 전사련) 제2대 회장에 무산 스님이 취임했다.

무산 스님은 전사련의 향후 계획에 대해 “새로운 시작이란 언제나 희망과 의욕을 상징한다”며 “재임 기간에 의욕만 앞세워 법인조직 관련 업무행정 현안 전반을 서두르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연합회 회장들이 신임초기 관례적으로 지나친 의욕을 지니는 것과 모든 현안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조급증의 단점을 지적하며 “조직이 갖는 복잡성과 상징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두르면 졸속으로 끝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무산 스님은 이런 경험에 비추어 재임기간에 세 가지를 중점에 두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첫째는 집행부 실무진과 행정 속도를 맞춰 예상치 않은 돌발사태가 발생할 경우 성급한 대응보다는 차분한 문제해결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라며 “점진적인 발전을 통한 연합회 발전을 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둘째, 조직 활성화와 조직 경제 살리기를 재임기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스님은 “초종파 실무 조직을 구성하겠다”며 “과감하게 중도인사, 합리적이고 능력있는 인재를 행정 업무 외교라인에 포함 시켜 해당분야에 전문적이고 중앙감 있는 인물을 집행부에 포진해 새로운 조직문화의 틀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세계 침구 한의대학, 중국1위 중의대학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특차 모집

1. 모집요강

Table with 4 columns: 학과 (Subject), 학제 (Term), 모집인원 (Recruitment),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Requirements and Documents). Rows include 한의학과 (5-year, 40 spots), 석사과정 (3-year, 10 spots), 박사과정 (3-year, 10 spots), 재경대학 (4-year, 80 spots).

2.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특징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한국식사 제공
· 군입대 연기가능
· 현지 생활 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관리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4. 원서 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 2013년 2월 25일

5. 문의처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 511-2026~7, (02) 511-1080
· 팩스 : (02) 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남경중의학대학 (南京中醫藥大學) 02)511-1080,2026

중국 남경

중·고생 조기유학

1. 입학대상

- 초등학교 5학년 - 고등학교 2학년

2. 제출서류

- 가족등본, 여권, 여권용 사진7매, 최종재학증명서

3. 제출기한

- 2월 25일까지

4. 유학생특전

- 호텔기숙사,한식제공, 3월 어학후 9월 입학, 고교졸업 후 대학입학 보장
1년내 신 HSK(중국어 수평고사 : 4, 5급 보장)

5. 출발일자

- 3월 8일

6.한국상담처

- 02) 511-2026,2027, 010-4552-5281

인터넷홈페이지 : www.njsdfx.co.kr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